

2020년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동국대, 제2 건학 위한 비전 선포...건학기금 1000억원 조성키로



김희욱 동국대 총장이 총장 취임식에서 학교 발전을 다짐하며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중흥을 위한 'RE-START PROJECT'를 선포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3월 21일 본관 중앙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학문의 융

·복합 및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 △국가 성장 동력을 선도 하는 R&D 중심대학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개 영역, 67개 전략과

제를 제시했다.

동국대는 202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문구조로 학제를 재편키로 했다. 불교학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불교학은 불교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재편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연합대학 등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중·일·미 4개 대학 불교 관련 복수 학위제 등이 시행된다.

다른 학문도 신설되는 '학문구조개편위원회'를 통해 △융·복합 △산업맞춤형 △국제화 분야 등 미래 대비 학문구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희욱 총장은 "올해 상반기 중 학문구조가 유사한 소규모 학과 운영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 1단계 개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학교는 향후 순수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방안과 함께 융·복합 학문 육성 방안 등을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단

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연구지원 조직 간 통합 및 협력을 위한 '연구경쟁력강화위원회'도 신설키로 운영한다.

특히,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대학본부에 집중됐던 교원 초빙 권한을 본부와 단과대학으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김희욱 총장은 "특성화 및 융합분야 위주의 최우수 교원 초빙은 대학본부가, 단과대학별 우수 교원 유치는 단과대학장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국대는 제2건학 운동 전개를 위해 1000억원의 제2건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국대가 밝힌 △총동창회 공동 모금활동 △바이오메디움캠퍼스 내 MBA 개설 △평생교육원 개원 △(가칭)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 등의 수익모델로 건학기금이 얼마나 모금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정각원 중국유학생 법회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는 3월 22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각원에서 중국어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40여 중국 유학생들이 참석해 절하는 법, 불법승 삼보(三寶), 불교초교리 등 '불교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주제로 진행했다. 법문은 중국 절강성 명진(明禎) 스님이 진행했다. 법회는 경전 개송, 반야바라밀다심경 독송, 삼귀의, 법문, 만남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중국유학생법회는 4월 26일 명상음악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상언 기자

100자 뉴스

총무원장 자승 스님 동곡학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선화여고를 방문한 자승 스님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해 햄버거와 콜라를 나눠주고 "앞으로 여성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의 눈으로 본 한국불교사

포교원, '한국불교사' 발간... 법산 스님 등 감수



불교 전래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서술한 책이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전 역사를 망라한 《한국불교사》(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정휴 스님은 3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한국불교사를 제대로 조명한 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조계종》 고승세편과 근현대편이 발간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불교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은 없었다"며 "이 점에서 《한국불교사》의 발간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흐름인 선과 화쟁 정신을 기동으로 한국불교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사》는 선을 바탕으로 한 회통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조계종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흐름을 서술했다.

책에서는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 △선의 전래와 조계종의 성립 △고려·조선시대의 불교 △근현대 불교와 대한불교조계종을 주 내용으로 한 책이다.

《한국불교사》는 특히 한국불교 전개과정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사상을 깊이 조명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 원효, 의상, 도의, 의천, 보조, 태고, 나옹, 휴정, 부휴, 초의, 백파, 경허, 용성, 성철 스님 등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의 사상과 역할을 세심하게 해아렸으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육조혜능 스님의 가르침으로 집중 조명했다.

《한국불교사》는 보편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부드러운 문장으로 풀이해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한국 불교사' 필수교재로 선정, 스님들의 교육용 교재 및 불자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이 책임집필했으며,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과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가 감수했다.

이어나 기자

석림동문회, 석림회 장학재단 추진

동국대 석림동문회가 석림회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1994년 이후 백상원 석림회장단(347)이 석림회 재학생들을 위해 석림동문회(회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에 장학금 1억 6000만원을 전달했다.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석림회장 영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석림회 사무국장 장적 스님(조계종 미디어특보), 총무 정범 스님(육천만 주지)과 석림회 재학생 등이 자리했다.

영담 스님은 "석림회 동문이 1200여 명에 이르는데도 활동이 부족해 후배나 비구 기숙사인 백상원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학인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림회 장학재단법안화를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장학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혜총 스님은 "석림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재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석림회 동문들은 종단과 화합해 불교발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석림동문회는 각 기수별로 1억여 원의



장학금 출연에 뜻을 모아 학인들의 장학금 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다. 장학금 운용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동국대 비구 학인스님들의 보급자리 백상원은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는 곳이다. 1965년 종단이 학비를 부담해서 스님을 양성하는 중비생(宗費生) 스님들로 구성된 석림회가 거쳐하는 곳이다. 1991년 지어던 백상원은 노후된 시설을 신축 정비하고 3월 18일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스님들이 이사를 했다. 후원이나 법당, 시설물, 살림살이 등의 불사는 지금도 추진 중이다. 비구니, 사미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평창동 해광사는 1994년 장영자 씨 소유의 6천 300평을 경매로 넘겨받았다. 해광사도 각 월 완공을 목표로 낙후된 공간을 보수 중에 있다. 이상언 기자

영천 충효사 방생수륙대재 봉행

영천 충효사(회주 해공)는 3월 24일 포항 칠해해수욕장에서 신도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명사랑 자비실천, 국운융창 국민화합기원, 방생수륙대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충효사가 운영하는 충효자비원은 범호 후 포항 신광·흥해·정하·송라면 500여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효친 한마당잔치를 마련했다.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보시공덕을 쌓고 작은 생명체라도 소중히 생각할 때 복이 나에게 되돌아 온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청, 학생 종교인권보호 조례 동참

대불청은 3월 24일부터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2010년 10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약 1%인 8만1000여 명이 동참해야 하며 현재 2만 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02)738-1920 이어나 기자

한국불교종단협,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불교종단협은 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3월 24일 진행했다. 협의회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를 위한 예비회의 개최와 봉축행사 봉행, 일본피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예비회의는 4월11~13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본대회는 강원도 낙산사에서 열린다.

봉축행사 봉행과 관련하여는 시청앞 점점식을 비롯한, 청계천 등달기 및 연등회, 법요식 등을 논의했다. 일본 지진피해 성금은 26개 소속 종단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박기범 기자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제】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총정석인왕 크스님, 스리랑카 시암종 총정아시끼리 크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크스님, 태국 제 카타판노 크스님, 스리랑카 아미라푸라 쇼바 크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 세계불교승왕청

총무원 대약사사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번지
TEL: (043) 731-2261 FAX: (043) 731-6453 회주: (043) 731-6454
본산 약사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 7번지
TEL: (031) 734-3205 FAX: (043) 735-3374 회주: (031) 747-8303

세계평화 · 남북통일기원 · 국가발전 · 가정만복기원

세계 고승과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석인왕 크스님께서 증명하시고 전개함으로써 수승한 인연을 맺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제] 및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해동신라의 원효 성사가 경찬하신 묘법의 현의와 고려 제관법사가 전하신 법화의 종지를 계승하여 의천대각국사께서 수립하신 천태종을 정통 종문을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러 인왕 크스님을 중정으로 전통적인 계법을 이어받았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중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1부 (오전 11시)

-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 2부 (오후 13:30시)

-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제

1. 일시 : 불기 2555년 음 3월 7일 (양 4월 9일) 토요일
2. 장소 : 총본산 금강 대약사사
3. 문의 : 총무원 금강대약사사 : TEL 043)731_2261
본산 성남 약사사 : TEL 031)734_3205